

March 24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 마태복음 5:9; 로마서 8:17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복으로 다가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롬 3:23).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롬 5:1).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요 1:12).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자리와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큰 장벽이 허물어졌고, 휘장도 찢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즉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롬 8:17).

상속자에게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며 팔복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와 너, 인간과 생에게 사이의 모든 관계도 깨어집니다(창 3:9-24). 사명도 방법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버지를 따라 평화를 일구는 자들은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만이 새로운 창조와 생명 살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아버지께 돌아올 것입니다(눅 15:19-24).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 ②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